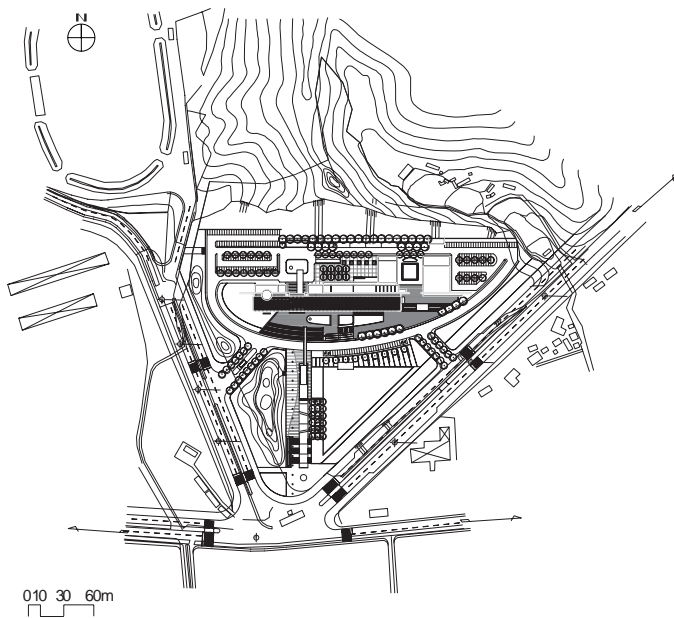


봉화군청사

Government Building for BongHwa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용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54,537m ²
건축면적	3,882.9m ²
연면적	11,106.71m ²
조경면적	19,094.68m ²
건폐율	7.12%
용적률	14.73%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철골조
주차대수	267대
최고높이	28m
내부마감	화강석, OA플로어, 수성페인트, 암면텍스
외부마감	알미늄쉬트, 칼라복층유리, 노출콘크리트



Location	Naeseang-ri, Bonghwa-eup, Bonghwa-gun, Gyeong sangbuk-do, Korea
Site area	54,537 m ²
Bldg. area	3,882.9 m ²
Gross floor area	11,106.71 m ²
Bldg. coverage ratio	7.12%
Gross floor ratio	14.73%
Structure	S,R,C
Bldg. Scale	B1, F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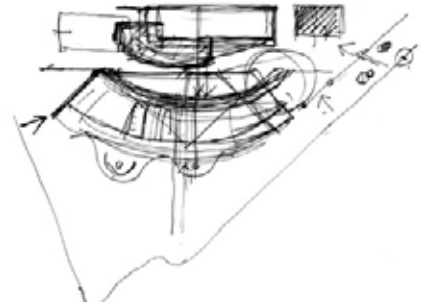
오지(奧地)에 자리한 아크로폴리스

이 프로젝트의 대지는 죽령을 넘어 소백산맥과 낙동강이 시작되는 지방인 봉화군이라는 비교적 감추어진 오지 속에 있다. 일부러 마음먹고 찾아가지 않으면 들리기 힘든 곳이다. 할머니들이 손수 키운 푸성귀를 파는 소박한 시골장터가 있는 곳, 맑은 공기와 하늘, 아름다운 산과 숲, 오염되지 않은 물과 마을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며, 봉화군에는 봉화군청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공공시설이 열악한 곳이기도 하다. 자연송이채취 등 1차 산업이 주요산업인 이 장소에 이 집은 계획되었다.

그곳에는 곳곳에 은둔된 우리네들의 풍토적 정서들과 소박함들이 자연풍광 속에 그대로 살아 있었다. 자연스러움으로 가득한 이 땅의 아름다운 풍토를 현대적 건축 행위를 통하여 우리 손으로 훼손해야만 하는 괴로움도 있었지만 그 지

역의 자연을 추상화시켜 현대적 건축언어와 어떻게 융합시킬 수 있을까가 중요한 과제였다.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적합한 프로그램적인 봉화군의 공공업무시설을 제안하는 것보다는 오염되지 않은 자연과 풍토성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모으고, 추상화시켜서 중심적 시설이 열악한 이 지역에 지어지는 군 청사를 열린 공공의 상징적인 장소로서 승화시키느냐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넓은 대지를 이용하여 주민들의 커뮤니티의 장소로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오지의 아크로폴리스를 어떻게 정의 내릴까가 이 프로젝트의 과제였다. 주민들이 모여 축제를 열수 있는 거대한 기단과 같은 몇 개의 광장들과 계단을 베이스로 하여 청사건물은 가능한 한 단정한 메스의 디자인으로 계획하여, 형태보다는 그 장소성을 재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거대한 청사 건물메스 전면에 휴먼 스케일의 현대적 정자를

한가운데 만들고 청사와 브릿지로 연결하여 이 장소성의 중심에 위치시켰다. 지역성과 풍토성으로 가득한 오지의 땅에 군청이 자리함으로 인해 지역의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어 주민 모두가 새로운 액티비티를 형성하고, 문화와 축제를 만들어내며, 생활의 질을 높이는 실마리가 되는 그런 장소성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것이 '오지의 아크로폴리스'라고 이 프로젝트를 부르



고 싶은 중심적 생각이다. 이 '오지의 아크로폴리스'의 광장은 가을이면 송이축제, 은어축제, 청량문화제 등이 열려 모든 주민들이 봉화군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장소로 승화될 것이다.

대지의 성질과 점층적 접근의 시퀀스

대지는 마을과 꽤 떨어진 마을 초입 언덕위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가장 편리해야할 공공시설이 마을 중심과 격리되어 있다는 특수한 상황이 문제점의 하나였다. 또한 사전 대지정지작업에 의해 땅의 형상과 컨텍스트는 이미 많은 부분 훼손된 곳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충실하게 보완해 가는 땅의 해석을 하여야만 했다. 역삼각형의 대지에다가 마을을 향해 겨냥한 활처럼 커다란 곡선의 기단의 제안은 그 방법 중에 하나였다. 땅이 갖고 있는 높은 경사를 몇 개의 레벨의 마당으로 구분하여 진

입의 마당, 자연의 마당, 축제의 마당, 수공간의 캐스캐이드, 현대화시킨 정자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마을중심과 격리된 거리에다가 접근의 시퀀스를 제공하여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청사 정면 남쪽 옥외 공간들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쉬고, 즐기는 주민의 모임과 축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보행자 전용의 이벤트공간으로 대부분을 할애하였으며, 차량진입과 옥외 주차장은 청사의 북쪽에 집중 배치하여 남쪽의 옥외보행자 전용 옥외공간들과 분리시켰다. 청사의 남측진입의 주 광장에서 보는 풍경과 주차장의 무질서한 풍경의 시각적 간섭을 철저히 배제시켰으며, 북쪽에서 하차하여 청사동과 의회동 현관으로 진입할 때 마을을 내려다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접근의 시퀀스를 의도적으로 계획하였다.

자연과 대응하며 자연과 관입하는 형태구성

자연스러운 대지의 특성에 대해 단정한 질서를 갖는 현대적 건축물로서 그 자연에 대응하는 디자인을 택했다. 공간적 대응이라 함은 서로 다툼을 이야기함은 아니다. 부드러운 자연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명쾌한 인공적 건축의 선과 면들로 거대한 자연을 구획하여, 구획된 곳에 각각의 작은 스케일의 자연으로 의미를 재생성하여 거대한 자연에서 리얼리티를 이끌어내는 대비를 뜻함이다. 현대적으로 디자인된 인공적인 선과 면들이 자연과의 극단적인 대립을 통해 자연을 더욱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는 역설적 방법은 없을까를 두고 고민하였다. 이러한 대비에 의해 땅은 더욱 부드럽게 숲과 산과 하늘이라는 자연으로 이어져 가면서 대지를 확장시키고, 길게 뻗은 캐노피와 날개벽을 가진 건물은 명쾌한 스카이라인을 생성하면서 맑은 하늘과 산이라는 자연과 이상적으로 접하게 된다.



이 집에는 커다란 메스로 느껴지는 부분을 배제하고 선과 면과 유리벽 그리고 열림의 공간들을 이용하여 자연을 적절하게 분절시키는 동시에 자연을 끌어들이는 요소로 사용하였다.

지방자치단체청사 계획에서 항상 고민하게 되는 청사동과 의회동의 대립적 위치 관계를 기능적으로는 두 동으로 분리시키면서 그 사이에 허공의 공간을 삽입하였고 메스로서는 긴 캐노피에 의해 하나로 일체화시켰다. 이 건물은 형태적으로는 한 동의 건물이나 의미적으로는 허공의 공간을 포함하여 세 동의 건물을 긴 캐노피에 의해 일체화시키고 있다. 두개의 청사동과 의회동은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절제 통일시키면서 청사동은 커다란 커튼월의 유리벽에 철골 브레싱을 사용하고, 의회동에는 원통형의 회의장 형태를 외부로 표출시켜 약간의 외관적 상징성만 달리 부여하였다.

이 건물의 파사드는 봉화마을이다

북쪽 주 출입구에서 현관으로 진입하는 청사동과 의회동의 두 메스의 사이에는 거대한 빈 공간을 뚫어내었다. 오묘한 자연의 변화를 가두어 줄 이 빈 공간은 봉화군청의 대문이 될 것이며, 이 상징적 게이트를 통하여 남쪽의 양광의 햇빛과 소백산맥의 산자락들과 사시사철 바뀌는 봉화의 맑은 하늘과 그리고 봉화마을을 내려다보고 접근하게 될 것이다. 이 건물의 주 파사드는 남쪽에서 보는 청사의 입면이 결코 아니다. 차량을 이용한 내방객이 북쪽에서 진입하여 남쪽의 소백산자락에 둘러싸인 봉화군의 상징인 호골산과 봉화마을을 내려다보면서 들어오는 시각적 접근의 방법을 택한 것이 가장 큰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건물의 메인 파사드는 바로 봉화마을이 되는 것이다. 봉화마을을 보며 들어오는 이 축이 청사의 메인 축이며, 모든 시각적 이동은

이 축을 따라서 일어나게 하였고, 건물의 배치는 이 축에 직교하게 배치하였다. 그 축의 한가운데 현대적으로 디자인된 정자를 만들어 경사가 급한 대지의 계단실로 이용하는 동시에 전망대 구실을 하게하였다. 전체대지의 한 가운데 있는 이 정자 위에 서서 마을을 내려다보면 봉화의 마을은 주민 모두들에게 '우리 마을'로 승화하게 될 것이다. 시각적으로 열린 이 파사드에 끌어들이는 대상은 봉화군의 아름다운 마을과 봉화의 자연이었으며, 그것이 바로 이 프로젝트가 의도한 계산된 봉화의 상징성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구간건축(주)이 설립되고 첫 설계경기에 참가, 당선되어 우리의 건축적 논리가 자리 내리는데 작은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이제 공사가 끝나고 우리의 건축이야기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

1. 행사마당에서 바라본 전경
2. 남쪽야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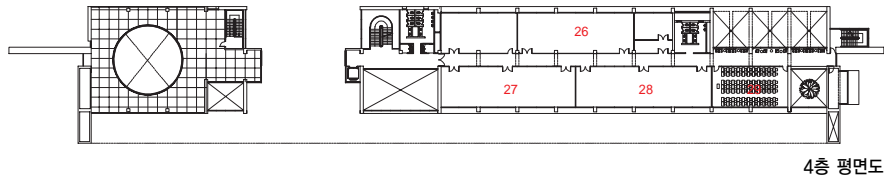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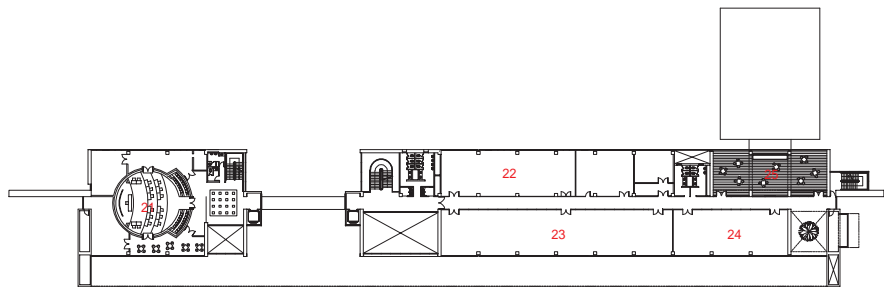
1. 동측진입 전경
2. 남측 접근 전경
3. 연결부위지
4. 북측면에서 바라본 마을 전경
5. 서측진입 전경

1	4
2	5
3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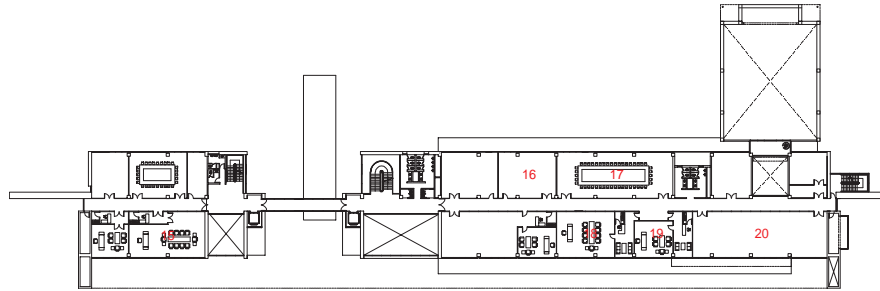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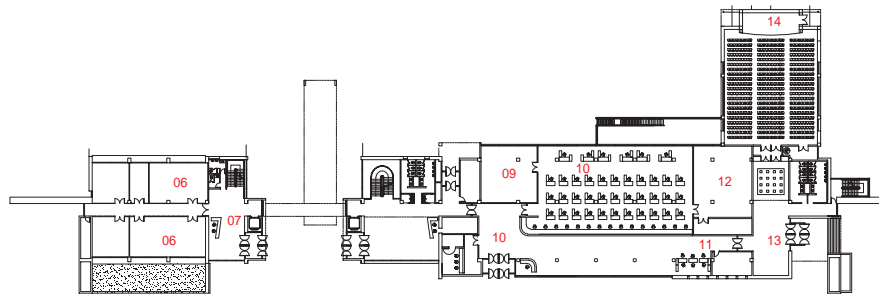
- | | |
|---|---|
| 1 | 2 |
|---|---|
1. 의회와 군청사 사이 열린공간
2. 주차와 연결브릿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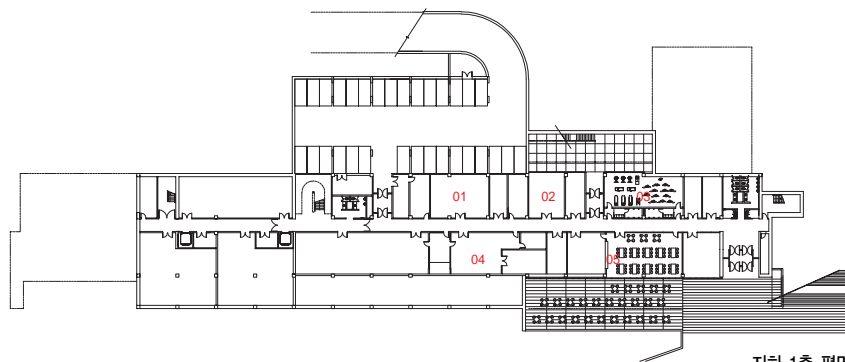
- 01 지하상황실
- 02 청사관리실
- 03 체력단련실
- 04 전기실
- 05 주방 및 구내식당
- 06 의원사무실
- 07 의원홀
- 08 민원홀
- 09 전산실
- 10 민원봉사실
- 11 민원상담실
- 12 지적창고
- 13 전시홍보
- 14 대회의실
- 15 의장실
- 16 상황실
- 17 회의실
- 18 군수실
- 19 부군수실
- 20 총무과
- 21 대화실
- 22 건설과
- 23 환경산림과
- 24 통신전산실
- 25 테라스
- 26 사회복지과
- 27 새마을문화관광과
- 28 산업경제과
- 29 전산교육장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0 5 15 30m